‘그라알 행렬’의 재해석
– ‘피 흘리는 창’을 중심으로

김 정 희 (서울대학교)

• 목 차 •

Ⅰ. 서론
Ⅱ. 그라알 행렬의 내재적 기원과 의미
1. 잔과 창
2. 붉은 무장과 붉은 피
3. 고해와 자기성찰
Ⅲ. 결론

Ⅰ. 서론

주지하다시피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그라알 이야기 *Le Conte du graal*』에 등장하는 그라알 행렬에 대해선 이미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라알 행렬의 의미, 특히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그라알 graal’과 ‘피 흘리는 창 la lance qui saigne’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켈트 신화, 기독교 전통을 위시하여 이슬람과 카타리파, 그 외 비의적 전통들을 총망라하는 설명들이 제시된 바 있다.[1] 이러

1) 그라알 행렬과 관련된 다양한 기원설에 대해서는 Jean Frappier, *Chrétien de Troyes et le mythe du Graal*, Paris, SEDES, 1972, pp. 163-212, 최애리, 『중세 그라알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19-34쪽, Philippe Ménard, “Réflexions sur la Porteuse du graal” dans *Les Personnages autour du*

한 외부 기원설들은 몇몇 개별적인 요소들과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늘 어긋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유발했다.[2] 그라알 행렬과 관련된 풍요의 단지나 불붙은 창, 혹은 질문의 모티프와 같은 요소들이 켈트 전설에서 개별적으로 발견되긴 하지만, 이들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전해지는 켈트 전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 프라피에 Jean Frappier의 지적[3]은 사실 그라알 행렬에 대해 성합이나 롱기누스의 창과 같은 기독교적 요소를 제안한 다른 연구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만한 것이다.[4]

Graal,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et transséculaire des 7 et 8 juin 2007. pp. 45-56을 참조할 것. 가장 대표적인 켈트적 기원설과 기독교적 기원설을 간략히 소개하면, 장 마르크스 Jean Marx처럼 전자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그라알'을 아일랜드나 웨일즈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풍요의 뿔, 혹은 단지의 변형으로, '피 흘리는 창'을 오웬구스 Oengus의 피흐르는 창이나 독이 든 피가 가득 담긴 단지에 담가 그 창날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도록 하기 전에는 그 창을 든 사람을 태워버리는 불붙은 창과 같은 것들의 변형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자크 리바르 Jacques Ribard나 알렉상드르 미샤 Alexandre Micha처럼 기독교 기원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그라알 안에 성체가 담겨있다는 이 소설의 한 대목을 근거로 그라알을 기독교 성찬예식에서 사용되는 성합 ciboire 혹은 성작 calice으로, 피 흘리는 창은 롱기누스의 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2) 기독교적 기원에 대해서는 그라알의 형태가 성체가 들어있는 일반적인 성합의 형태와는 거리가 있으며, 일반 성찬예식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이 그것을 들고 간다는 점, 롱기누스의 창과 성합이 하나의 행렬을 이루는 점 등의 세부적 차이들과 더불어 이러한 기독교적 기원과 소설 내 다른 내용과의 정합성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다. 켈트적 기원의 경우, 개별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지만 분산된 요소들 간에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퍼즐과도 같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이에 장 마르크스는 현전하지 않는 문학적 전통의 가설을 제시하며 켈트 전설과 모든 그라알 문학작품들을 토대로 켈트적 상상력의 원형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Annie Combes & Annie Bertin, *Ecritures du Graal,* Paris, PUF, 2001. (Etudes littéraires), pp. 28-9 및 Jean Frappier, *op. cit.*, pp. 198-9 참조.

3) Jean Frappier, *ibid.*, p. 202.

4) 성찬예식에 창을 상징하는 작은 칼이 등장하는 '비잔틴 대입례 Grande Entrée byzantine'가 이러한 요소들이 통합되어 나타난 예로 제안되기도 했지만 행렬을 이루는 요소들 간에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다는 점, 또 무엇보다도 크레티앵과 그리

그라알 행렬의 기원과 의미를 텍스트 내부에서 찾고자 한 시도 또한 그리 성공적이진 않았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라알 이야기』가 미완성 소설이라는 점이다. 필립 메나르는 철저히 크레티앵 드 트루아가 소설 내에서 암시한 것들에 의거하여 소설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대표적인 연구자다. 그는 ‘피 흘리는 창’을 페르스발의 가문에 닥친 불행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복수를 촉구하는 무기로 해석하지만 소설이 미완성으로 끝남에 따라 그 해석은 이 소설 내에서는 입증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메나르는 “사전포석 pierre d’attente”[5]이라는 개념에 기댄다. 그러나 그것은 크레티앵의 소설 내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것을 후대에 쓰여진 속편들에 비추어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내재적 접근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 이 오브제들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페르스발이 했어야 했던 질문이 그라알이나 피 흘리는 창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라알로 누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가?”, “왜 창이 피를 흘리는가?”였다는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신비로운 오브제들을 온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사물을 텍스트 내에서 찾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라알 행렬의 초점을 오브제 자체가 아니라 이

스 정교회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이 없었다. *Ibid.*, pp. 166-167.

5) “Sans imposer au texte des significations ésotériques ou des symboles cachés, dont il n’a cure, sans dissimuler les énigmes et les obscurités impossibles à démêler, tout en restant au ras du texte et en s’efforçant de rendre compte des pierres d’attente habilement disposées tout au long du l’oeuvre par un habile architecte, il est possible de percevoir le mouvement profond qui anime le récit et l’oriente vers un dénouement attendu.” Philippe Ménard, “Problèmes et mystères du *Conte du Graal* : un essai d’interprétation” dans *Polyphonie du Graal* (textes réunis par Denis Hüe), Orléans, Paradigme, 1998. p. 59 (article paru dans *Chrétien de Troyes et le Graal,* colloque arthurien belge de Bruges, Paris, Nizet, 1984).

질문들이 겨냥하는 것에 둔다면 그라알 행렬의 내재적 기원 문제는 달리 접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라알로 누구에게 음식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텍스트 안에서 이미 명확한 설명이 주어졌다. 페르스발은 자신이 해야 했던 질문 두 개 중 그라알과 관련된 답을 은자로부터 듣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자가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해서만 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출현한 은자에 의해 정답이 주어지는 방식은 이 소설의 내적 동력을 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석연치 않다. 은자에 의해 모험의 의미가 해명되는 방식은『그라알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13세기 알레고리 소설『성배탐색 *La Queste del Saint Graal*』을 특징짓는 글쓰기다. 물론『성배탐색』의 이러한 글쓰기 방식 자체가『그라알 이야기』속의 은자 에피소드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그라알 이야기』내에서 그러한 질의응답구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이며 제한적이다.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소설들, 특히『그라알 이야기』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크레티앵 드 트루아는 단 하나의, 확정된 의미를 작위적으로 '삽입'하는 작가는 아니다. 그의 소설들은 등장인물 스스로, 그리고 독자 스스로 의미를 찾을 것을 촉구한다. '피 흘리는 창'에 대한 답이 은자에 의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알 행렬에 대한 페르스발의 탐색이 여기서 일단락된 것은[6] '왜 창이 피를 흘리는가?'에 대한 답을 페르스발이 스스로 이미 찾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독자가 보아야 할 것은 페르스발 스스로 그 답을

6) 페르스발 편이 여기서 중단되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페르스발이 더 이상 '피 흘리는 창'에 대한 탐색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설의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그 탐색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자와의 만남' 에피소드 이전에 위치한 고뱅 편에서 고뱅이 에스카발롱 성주의 강요에 떠밀려 매우 소극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창을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의 맹세 자체가 사실상 탐색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찾아내는 과정일 것이며 그 점에서 ‘피 흘리는 창’은 이 소설에서 그라알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작가가 ‘피 흘리는 창’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응축해서 보여준 것, 그것이 소설 내에서 가리키는 내용들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의미망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는 ‘피 흘리는 창’의 내재적 기원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라알 행렬의 구성요소들을 같은 텍스트 내에서 이미 등장한 다른 요소들의 반향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라알 행렬의 내재적 기원을 찾는 우리의 작업은 반복 및 반향구조 분석을 통해 소설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과 맞닿아 있다. 크레티앵 드 트루아 소설들의 일반적 특징으로 꼽히는 동일 모티프의 반복은 다른 어느 소설보다도 『그라알 이야기』 내에서 더 체계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소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소설에서 반복구조는 페르스발의 변모를 보여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동일 인물의 재출현을 통해 주인공의 성장을 보여주는 장막의 처녀와 그녀의 애인인 황야의 오만한 자의 경우나, 아더왕 궁정의 쾨, 광대, 웃지 않는 처녀 트리오의 경우, 혹은 동일 기능의 반복을 통해 교육의 보다 심화된 단계를 보여주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고르느망의 가르침, 나아가 은자의 가르침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재등장하지 않는 모티프를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철저한 반복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바, 이것은 “대위법적 글쓰기 écriture de contrepoint”, 혹은 “이중화 원칙 principe de dédoublement” 등의 표현을 얻으며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7] 이러한 측면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작업으로는

7) “Contrastes, similitudes créent des liaisons, des échos, des rappels, des analogies qui de variation en variation dessinent ce que Jean Frappier appelle une écriture en contrepoint.” F. Dubost, *Le Conte du Graal ou l’art de faire signe*, Paris, Champion, 1998, p. 28.

앙투아네트 살리 Antoinette Saly의 '전도된 대칭구조를 형성하는 모티프들의 반복'[8] 분석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그라알 이야기』 내 이야기 récit를 모티프들로 해체한 뒤 "모티프들의 반복과 대응에서 전도 inversion와 전이 transfert의 원칙을 파악해낸" 작업으로서, 살리는 이를 통해 고뱅이 페르스발에 대해 "거울 속에 비친 전도된 반영 reflet inversé dans un miroir"일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9] 모티프들의 반복 및 대응구조에 대한 살리의 분석이 『그라알 이야기』의 흥미로운 독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라알이 대칭구도를 증명하는 도구적 성격으로만 파악되고 있을 뿐 그라알 행렬에 대해 그 이상의 해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10]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은 살리의 분석방법론을 차용하되 살리가 파악한 구조와는 다른 대응구조의 존재를 페르스발 편 내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그라알 행렬을 구성하는 모티프들과 반향 관계를 이루는 모티프들을 텍스트 내부에서 찾아 이들 간의 공명이 환기하는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소설 내 반복 구조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라알 행렬과 관련된 분석이 여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그 유사성이 명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에피소드와 모티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바, 이들의 대응관계, 특히 이들이 창출하는 거울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다.

---

8) Antoinette Saly, "La récurrence des motifs en symétrie inverse et la structure du *Perceval*" dans *Polyphonie du Graal* (textes réunis par Denis Hüe), Orléans, Paradigme, 1998. pp. 147-167.

9) *Ibid.*, pp. 156-9.

10) 살리는 고뱅이 그레오레아스를 치료하는 약초와 그라알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있다. *ibid.*, p. 162.

Ⅱ. 그라알 행렬의 내재적 기원과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라알 행렬장면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젊은이가 그 성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젊은이가 한 방에서 나온다. 그는 새하얀 창의 자루 한가운데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눈부시게 새하얀 창날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더니 그 젊은이의 손까지 흘러내린다. 젊은이는 어찌된 일인지 물으려다가 한 대인의 충고를 떠올리고 그만둔다. 그는 젊은이에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어서 젊은이 두 명이 휘황하게 여러 개의 촛불이 켜진 촛대를 각각 들고 나타나고 그들과 더불어 양 손으로 그라알을 받쳐 든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왔다. 순금에 온갖 진귀한 보석이 박힌 그라알로부터 환한 빛이 퍼져 나와 촛불들이 그 빛을 잃을 지경이다. 그라알을 든 아가씨에 이어서 은쟁반을 든 아가씨가 들어오고 창이 지나가듯이 이들은 한 방에서 들어와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젊은이는 그라알로 누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대인의 충고를 기억하여 참는다. 주인은 이윽고 식탁을 차리라 하고 진귀한 음식이 대접된다.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라알은 그들 앞을 지나간다. 젊은이는 다음 날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묻기로 하고 먹고 마시는 데만 열중한다. 다음 날 그가 일어났을 때 성은 텅 비어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성을 나오게 된다. 숲에서 만난 한 아가씨는 그라알 행렬을 보았는지 젊은이에게 질문을 하고 그가 아무 것도 묻지 못했다고 하자 화가 나서 그의 이름을 묻는다. 젊은이는 자기 이름을 몰랐던 터라 짐작으로 “갈루아인 페르스발”이라 대답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러자 사촌누이로 밝혀진 그 아가씨는 그가 질문을 했었다면 불수의 왕이 지체의 힘을 되찾고 자기 땅을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며 젊은이에게도 유익이 되었을 것인데 이제 모두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라 예고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젊은이가 어머니에 대해 지은 죄 때문이라 말한다.[11]

---

11) 크레티앵 드 트루아, 『그라알 이야기』(최애리 옮김) 을유문화사, 2009, 198-222쪽의 내용을 요약하여 인용하였음.

그라알 행렬의 신비로움은 우선 '그라알'과 '피 흘리는 창'이 주는 낯선 느낌에 기인한다. 그라알은 마치 누구나 아는 단어인 듯이 부정관사 'un'과 더불어 보통명사처럼 사용되었지만 사실 그리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다.[12] 독자는 이 소설에서 이루어진 묘사, 그리고 그것이 등장하는 맥락을 통해 이 단어가 지시하는 바를 추측할 뿐이다. 의례를 방불케 하는 행렬에 통합되어 휘황하게 불이 켜진 수많은 촛불을 압도할 정도의 눈부신 빛을 발산하고 있는 모습은 일상적인 그릇을 넘어서는 그라알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피 흘리는 창'의 경우, 창날에 피가 굳어있는 것이라면 크게 신비로울 것이 없는 물건이지만, 생명이 없는 창과 생명체의 특징인 흘러내리는 피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그라알 못지않은 신비로움을 갖고 있다. 이 오브제들의 신비로운 느낌은 이들이 이 소설에서 아무런 배경설명 없이 느닷없이 등장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작가가 당대 독자들에겐 익숙했을 법한 기독교적 전통이나 켈트 신화에서 그 모티프들을 차용했을 가능성을 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라알 행렬에서 이들의 출현이 과연 그렇게 갑작스러운 것이었을까? 모티프의 반복과 반향구조가 지배하는 이 소설에서 그라알과 창은 예외를 이루는 것일까? 주의깊게 이 소설을 읽어보면 그라알과 피 흘리는 창이 동일한 형태로 등장한 적은 없지만 이들과 공명을 일으키는 모티프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바로 페르스발이 "기사로 만들어주는 왕"을 찾아 처음으로 아더왕 궁정을 방문하는 에피소드다. 이 에피소드 내에는 그라알 및 창에 각각 대응하는 오브제들을 위시하여 '하지 못한 질문'의 모티프, '불행한 사태에 대한 예언'의 모티프 등 그라알 모험과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

12) 이 단어의 연원에 대해서는 최애리, *op. cit.*, 14-16쪽을 참조할 것.

다. 물론 이 모티프들이 그라알 행렬에서처럼 하나의 행렬로 통합된 형태로 존재한다거나 밀접한 인과관계 속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 에피소드의 모티프들과 그라알 에피소드의 모티프들은 동일성보다는 유사성, 때로는 대조의 관계 속에 놓여있어 그 상관성을 인지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그 관계가 간과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피소드들 간에 우연의 효과라기보다는 충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공통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바, 이하에서는 이 모티프들 간의 계산된 상관성이 어떻게 이 소설에서 일관된 의미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1. 잔과 창

페르스발의 첫 번째 아더왕 궁정 방문 에피소드의 중심에 위치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된 뒤 그냥 사라져버리는 모티프가 있다. 이 소설을 지배하는 반복구조를 고려했을 때 예외적인 경우로 보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금잔 coupe d’or’의 모티프다. 아더왕의 성 앞에 다다른 페르스발은 그때 막 성문을 통해 붉은 무장을 한 기사 한 명이 방패, 창, 고삐를 모두 왼손에 몰아 쥔 채, 오로지 금잔만을 오른손에 들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다.[13] 이 기사가 그 금잔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그가 페르스발에게 한 말에서 곧 확인된다.

Et tant diras au malveis roi

13) Et vit issir parmi la porte / Un chevalier qui armé porte / Une cope d’or en sa main. / Sa lance tenoit et son frain / Et son escu a la senestre / Et la coupe d’or en la destre, / Et ses armes bien li seoient, / Qui totes vermoilles estoient. (vv. 823-830)

Que s'il ne viaut tenir de moi
Sa terre, que il la me rande
O il envoit qui la desfande
Vers moi qui di que ele est moie.
Et a ces ensaignes t'en croie
Que devent lui pris orendroit
A tout lo vin que il bevoit
Cete cope que je en port. (vv. 847-855)[14]

그리고 그 나쁜 왕에게 전해주게나. 그가 자기 땅을 내게서 받고 싶지 않거든 땅을 내놓으라고 말이야. 아니라면 누군가 내게 맞서 그 땅을 지킬 사람을 보내든지. 왜냐하면 그 땅은 내 것이거든. 그 증거로, 이걸 보면 자네도 믿겠지만 방금 그가 보는 앞에서 그가 마시던 포도주째로 이 잔을 낚아채어 가져가는 거라네.[15]

금잔은 아더왕 소유의 잔으로서 아더왕이 영지를 내놓고 자신의 봉신이 되라는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붉은 무장을 한 기사가 영지 대신에 아더왕으로부터 빼앗아간 일종의 담보다. 금잔이 아더왕 고유의 권리를 상징하는 오브제임은 "왕에게 그의 잔을 au roi sa cope" (1155행, 1160행), "당신의 잔 vostre cope" (1162행) "나의 잔 ma cope" (1175행)에서처럼 아더왕을 지칭하는 소유형용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도 부각된다. 아더왕 소유의 금잔이 상징하는 영지 소유권은 차후 페르스발이 그라알 행렬에 대해 필요한 질문을 했더라면 "불수의 왕이 지체의 힘을 되찾고 자기 땅을 다스릴 수 있었을텐데"라는 사촌누이의 말에서 그 반향을 읽을 수 있는 것

14) 인용문에서 강조할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음.
15) 크레티앵 드 트루아, 『그라알 이야기』(최애리 옮김) 을유문화사, 2009, 70쪽. 차후 『그라알 이야기』 내 인용문 번역의 경우, 이 책의 해당 페이지만을 본문에서 표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논지 전개를 위해 대체번역이 필요한 경우, 밑줄로 새로운 번역을 표시하도록 하겠다.

들이다. 그렇지만 그라알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이 금잔이 더욱 흥미롭게 생각되는 것은 아더왕이 “내 영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한 것”으로 이야기한 다른 사건 때문이다. 그것은 붉은 무장의 기사가 금잔을 아더왕으로부터 빼앗아 그 잔에 가득 담긴 포도주를 왕비에게 쏟아버린 사건이다.

Ne m’aüst guaires correcié
Li chevaliers de quant qu’il dit,
Mais devant moi ma cope prist
Et si folemant l’an leva
Que sor la raïne versa
Tot le vin de coi estoit plaine.
Ci ot oevre laide et vilaine,
Que la raïne en est entree,
De dol et d’ire enflamee,
En sa chambre, ou ele s’ocit,
Ne ne cuit pas, que Dex m’aït
Que ja en puise eschaper vive. (vv. 914-925)

그 기사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았지만, 그는 내 앞에서 내 잔을 빼앗아 어찌나 거칠게 치켜들었던지 거기 가득한 포도주를 왕비에게 쏟았다오. 그 무슨 추하고 뻔뻔한 행동인지! 왕비는 분통한 나머지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너무나 울화가 나서 죽으려 한다오. 하느님이 보우하사, 내 생각에는 그녀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소. (74쪽)

붉은 무장의 기사가 쏟아부은 붉은 포도주가 몸에서 흘러내릴 것이 분명한 왕비, 그 치욕으로 다른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곳에서 슬픔에 잠겨있을 그녀의 모습, 그리고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페르스발의 태도는 아더왕의 영지를 상징하는 금잔과 더불어 순전히 우연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왕과 기사들이 떠들썩하게 식

사를 하는 홀과 왕비가 들어가버린 다른 방으로 구성된 아더왕 성의 공간분할은 대부분의 중세 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모든 기사들이 떠들며 식사하는 가운데 아더왕 홀로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고 이들은 왜 왕이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거나[16], 또 왕비만이 떠들썩한 홀이 아닌 다른 방에 들어가 죽기라도 할 듯이 상심해있다는 점에서 이는 같은 장소 내 감정적 분할의 기호, 특히 공감 부재의 기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라알 행렬의 모험에서 어부왕과 페르스발이 왕후장상이나 받을 법한 호화로운 식사를 했던 홀과 그들 앞을 지나서 그라알이 들어가는 다른 방으로 이루어진 어부왕 성의 공간분할이 은연 중 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금잔의 탈취가 아더왕권에 대한 도전과 왕비에 대한 모독의 기호로 작용하는 것은 붉은 기사와 아더왕의 말을 통해 두 번에 걸쳐 드러난다. 그러나 "당신의 금잔을 가져간 기사의 무장"(956-958행)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페르스발이 금잔에 대해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 기사가 가진 붉은 무장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 금잔에 대한 반복적 언급과 그것에 대한 페르스발의 철저한 무관심 간의 강렬한 대조는 그 후 이 에피소드 내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 된다.[17] 페르스발에게 금잔은 붉은 무장의 기사를 지칭하는 표식[18]일 뿐으로 페르스발이 탐낸 붉은 무장

16) Et li rois Artus est assis / Au chief d'une table pansis / Et tuit li chevalier parloient / Et li un as autres disoient : / "Qu'a li rois, qu'est pensis et muz?" (vv. 865-869)

17) 예를 들어, 페르스발이 다시 붉은 기사를 찾아가자 기사는 그와 싸울 채비를 하기 위해 금잔을 회색돌 위에 내려놓지만 페르스발은 그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무장을 벗으라고 소리칠 뿐인 장면, 마침내 붉은 기사를 죽이고 그의 무장을 모두 걸친 다음에 페르스발은 이보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자신의 사냥용 말을 선물하며 그것과 더불어 아더왕에게 돌려주라며 잔을 건네는 장면들이 이에 해당한다.

18) Ne serai chevaliers des mois, / Se chevaliers vermaus ne sui. / Donez moi les

을 갖는 과정에서 덤으로 획득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금잔은 아더왕이 근심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수월하게 반환되면서 순식간에 이야기의 지평에서 사라져버리는 듯 하지만 그것은 그라알 행렬에 대한 페르스발의 침묵, 그라알 행렬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어부왕의 영지회복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복류천처럼 솟아오른다. 영지에 대한 아더왕의 권리를 상징하는 금잔, 그 잔에 가득 담긴 포도주를 뒤집어쓰고 슬픔에 잠겨 다른 방으로 들어가버린 왕비, 이 모든 것을 보았던 페르스발의 철저한 무관심, 페르스발이 붉은 기사를 죽이고 금잔을 돌려보냈을 때 광대가 했던 험하고 거친 모험의 도래에 대한 예언은 그라알 모험 에피소드에서 기시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그러한 반향관계는 “피 흘리는 창”과 관련하여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 Et tuit cil de leianz veoient
> La lance blanche et lo fer blanc,
> S’an ist une goute de sanc
> Do fer de la lance an somet,
> Et jusqu’a la main au vallet
> Corroit cele goute vermoille. (vv. 3134-3139)

>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새하얀 창과 창날을 봅니다. 창날 꼭대기에서 피 한 방울이 솟아나더니, 그 붉은 핏방울이 젊은이의 손까지 흘러내립니다. (199쪽)

한 젊은이가 수직으로 들고 있는 흰색 창 끝의 쇠창날로부터 붉은 핏방울이 흘러내리는 비현실적인 장면에서 신화적 요소들의 반

---

armes celui / Que j’encontrai de ors la porte, / Qui vostre cope d’or en porte. (vv. 954-958)

영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 비현실적 묘사 속에서 같은 텍스트 내 특정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듯이 보이는 세부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두 번에 걸쳐 언급된 "창날lo fer"은 아더왕 궁정을 처음 방문했을 때 페르스발이 붉은 무장을 한 기사와 싸우는 장면에서 이미 다소 의아한 방식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Lors fu li chevalierz iriez,
La lance a en .II. poinz levee
Et si l'en done grant colee
Par les espaules en travers
Par la ou n'estoit pas li fers,
Qu'il lo fist enbronchier aval
Jusques sor lo col do cheval. (vv. 1058-1064)

그러자 기사는 성이 나서, 양 손으로 창을 쳐들고는 창날이 없는 쪽으로 그의 어깨에 한 차례 타격을 가해, 소년의 머리가 말의 목덜미까지 꺾이게 만들었다. (83쪽)

무장을 내놓으라는 페르스발의 재촉에 화가 난 붉은 기사는 두 손으로 창을 들어올려 페르스발의 어깨를 세게 내려친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창날이 없는 쪽으로"라는 표현이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지극히 사소한 표현이지만 이 역시 순전히 우연적인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창날이 없는 쪽을 이용한 공격에 대한 언급을 기사도 소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는 창날을 유난히 부각시킨 그라알 행렬의 창에 대한 일종의 복선처럼 보인다. 날이 없는 쪽을 사용한 붉은 기사의 공격과는 대조적으로 페르스발이 이에 대한 반격으로 던진 투창은 붉은 기사의 눈을 관통하여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투창을 눈에 맞

은 붉은 무장의 기사의 피와 뇌수가 목덜미 쪽으로 흘러나오는 장면은 『그라알 이야기』를 통털어 유일한 살해장면으로서 페르스발의 잔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된 장면이다. 먼 거리에서 던진 투창은 기사들이 근접거리에서 사용하는 창이나 칼과는 달리 그 자체로 “배신의 일격 coup félon”[19]이라 할 만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특히 “창날이 없는 쪽”을 사용한 붉은 기사의 일격과 대조를 이룬다. 쇠로 된 창날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그라알 행렬의 창은 어떤 신화적 행위를 환기하기에 앞서 페르스발이 던진 투창, 날없는 공격에 대한 날선 공격의 폭력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의 “창날”은 ‘피 흘리는 창’에 대한 작은 단서에 불과하다. 페르스발이 죽은 붉은 기사의 몸에서 무장을 벗겨내려고 할 때, “이 시체를 구울 고기토막처럼 자르기 전엔 단 하나도 가질 수 없겠어. 이것들은 몸에 하도 착 달라붙어서 안팎이 하나인 것처럼 전부 하나로 되어있는 걸.”[20]이라고 하는 말은 무장을 처음 다뤄보는 페르스발의 서투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장과 사람 간의 일체성, 나아가 정체성의 문제 또한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페르스발이 붉은 기사를 이렇게 죽이고 얻은 붉은 무장은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형성되는 붉은 색 이미지망의 핵심요소다. 투창을 눈에 맞고 죽은 기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낭자한 가운데 페르스발이 죽은 기사의 붉은 색 무장을 하나씩 벗겨내어 자기 몸에 걸치는 모습은 이후 페르스발이 사용하는 무장의 붉은 색과 그가 흘리게 한 피의 붉은 색 간의 동화를 강렬하게 예고한다.

---

19) Ph. Ménard, art. cité, p. 72.

20) Mais ainz avroie a charbonees / Trestot esbraoné ce mort / Que nules des armes en port. / (Qu’ele se tienent si au cors / Que ce dedanz et ce defors / Est trestot un si con moi sanble / Qu’eles se tienent si ansanble) (vv. 1092 sq.)

2. 붉은 무장과 붉은 피

페르스발은 그라알 모험 뒤 사촌누이를 만나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기까지 "붉은 무장의 기사 chevalier aux armes vermeilles"로 지칭된다. 탈취한 무장의 붉은 색이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기사도 소설에서 피에 대한 언급은 드물지 않지만 이 소설에서 붉은 피에 대한 환기는 가히 강박적이라 할 만하다. 그것이 다분히 의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크레티앵이 이 소설에서 만들어낸 '관습 coutume'에서다. 크레티앵 드 트루아 소설에서 '관습'의 모티프가 갖는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21] 그것들은 대부분 철폐되어야 하는 악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더왕이 지킬 수밖에 없는 관습으로 소개되며 흔히 그의 소설들에서 기이한 모험들을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관습'은 크레티앵 드 트루아 소설에서 '모험'이라는 가장 허구적인 소설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하겠다. 『그라알 이야기』에서 크레티앵이 만들어낸 관습은 바로 결투에서 진 기사가 패배했을 때 복장 그대로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관습이다.

> costume estoit an ce termine,
> Sel trovon escrit en la letre,
> Que chevaliers se devoit metre
> An prisson atot son ator
> Si com il partoit de l'estor
> Ou il aüst conquis esté,
> Que ja rien nule n'en aüst osté.
> Ja rien nule n'i aüst mise. (vv. 2662-2669)

---

21) Donald Maddox, "Lancelot et le sens de la coutume" dans *Cahiers de civilisation médiévale*, n° 116, Octobre-décembre 1986, p. 341.

쓰여진 바에 의하면, 싸움에서 진 기사는 패배할 당시의 복장 그대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말고, 그대로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답니다. (172-3쪽)

크레티앵의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이 소설에서는 이 ‘관습’으로 인해 새로운 모험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 관습이 여기서 갖는 기능은 페르스발이 흘리게 한 붉은 피를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관습’이 수행하는 단 하나의 역할이 붉은 색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면 이 소설에서 붉은 피의 시각화가 갖는 중요성은 명백해 보인다. 실제로 페르스발에게 패배한 클라마되가 그 관습에 따라 아더왕 궁정에 갔을 때 클라마되의 봉신이자 그 자신 또한 페르스발에게 패하여 사흘 전 똑같은 여정을 거쳐 도착했던 앙겡그롱은 온통 붉은 피로 뒤덮인 채 다가오는 자신의 주군 클라마되의 모습에 아더왕 궁정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Son seignor tot de <u>sanc vermoil</u>
Vit covert, no mesconut pas;
Ançois saut sus plus que lo pas
Et dit : “Seignor, <u>veez merveilles</u>,
Li vallez as <u>armes vermoilles</u>
Envoie ci, si m’en creez,
Ce chevalier que vos veez.
Il l’a conquis, j’en sui toz serz,
Por ce qu’il est d<u>o sanc coverz</u>. (vv. 2704-2712)

그의 주군은 온통 붉은 피로 덮여있었지만, 그는 주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말했습니다. “기사님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붉은 갑옷의 그 젊은이가 저기 보이는 저 기사를 보냈군요. <u>그가 피로 뒤덮인 것을 보니 그 (젊은이)가 이긴 것이 확실해요</u>. (174-5쪽)

그의 주군이 온통 붉은 피로 뒤덮여있다는 말은 두 번 반복된다. “그가 피로 뒤덮인 것을 보니 붉은 무장을 한 그 젊은이가 그와 싸워 이긴 것이 확실해요”는 말에서 “피 sanc”는 “붉은 무장을 한 젊은이 vallet aux armes vermoilles”가 거둔 승리의 표식이다. 즉, 패자를 뒤덮은 붉은 피가 그 자체로 승자인 붉은 기사 페르스발을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붉은 피를 통해 페르스발과 패자 간에 생겨나는 일종의 거울효과는 그 뒤에 등장하는 “피 흘리는 창”의 난해한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여기서 무장의 “붉은 색 vermoille”이 “놀라운 일 merveille”과 이루는 각운은(2707-8행) 역시 “이 붉은 핏방울 cele goute vermoille”과 “이 놀라운 일 cele mervoille”이 동일한 각운을 이루며 결합된(3139-3140행) 그라알 행렬의 ‘피 흘리는 창’ 에피소드와 공명을 일으킨다.

S’an ist une goute de sanc
Do fer de la lance an somet,
Et jusqu’a la main au vallet
Corroit cele goute vermoille.
Li vallez voit cele mervoille
Qui le soir fu leianz venuz
Si s’et do demander tenuz
Commant cele chose venoit,... (vv 3136-3143)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새하얀 창과 창날을 봅니다. 창날 꼭대기에서 피 한 방울이 솟아나더니, 그 붉은 핏방울이 젊은이의 손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날 밤 그곳에 온 젊은이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는 어찌된 일인지 물으려다가 그만둡니다. (199쪽)

그라알 행렬의 창날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붉은 색이 일으키는 공

명을 통해서 바로 직전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클라마되를 뒤덮고 있는 붉은 피,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페르스발의 붉은 무장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공명구조는 "젊은이 vallet"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앙겡그롱이 페르스발을 지칭했던 표현 "붉은 무장을 한 젊은이 Li vallez as armes vermoilles"에서 사용된 "젊은이 vallet"라는 단어는 그라알 행렬묘사에서 "젊은이의 손으로 흘러내리는 붉은 피 Et jusqu'a la main au vallet corroit cele goute vermoille" (3138행)와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젊은이 Li vallez voit cele mervoille" (3140행)에서 또 다시 등장한다. 물론 "젊은이 vallet"라는 단어의 반복 사용만으로 피 흘리는 창을 든 젊은이와 그것을 바라보는 젊은이 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간 모종의 관계를 암시하는 두 가지 요소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그라알 행렬의 젊은이가 들고 있는 창과 그 창이 흘리는 붉은 피, 그리고 흘러내린 붉은 피가 적신 젊은이의 손이 보여주는 것으로, 무기와 피와 사람이 붉은 색으로 동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자신이 투창을 던져 죽인 붉은 기사의 무장을 벗겨내어 자기 몸에 걸치고, 그렇게 획득한 붉은 무기로 또 다른 기사들을 붉은 피로 뒤덮은 또 다른 젊은이에 대한 환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환기시키는 "사후출혈현상 cruentation"의 모티프다. '사후출혈현상'이란 살해한 자가 근처에 있으면 시신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러내린다는 중세인들의 믿음으로[22], 크레티앵 드 트루아가 이전 소설『사자의

22) 필립 메나르 또한 피 흘리는 창을 이 '사후출혈현상'의 모티프를 이용하여 해석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크레티앵 드 트루아가 이미 자신의 다른 소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명이 아니라 다른 변형 모티프에 근거하여 이 장면을 가해자의 무기가 희생자 앞을 지나갈 때 그 무기에서 흘러내리는 것으로, 그리하여 페르스발에게 어부왕 가문의 복수를 요청하는 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티프에

기사 *Le Chevalier au lion*』에서 이뱅이 살해한 자의 몸에서 피가 다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살해자가 시신 근처에 있음을 확신하는 장면에서 아주 흥미롭게 사용되었던 것이기도 하다.[23] 이것은 창날에서 흐르는 피가 필립 메나르가 주장하듯이, 페르스발에게 어부왕 가문의 복수를 요청하는 피가 아니라 페르스발 자신이 흘리게 한 피, 바로 살해자인 그가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희생자의 피라고 보도록 하는 기호가 아닐까? "살도 없고, 핏줄도 없는" 창에서 왜 피가 흐르는지를 묻지 못한 것, 이는 그 경이로운 장면에서 창날이 가리키는 자신의 과거 행위들에 대한 암시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페르스발이 경이롭게 바라보는 피 흘리는 창의 이미지가 사실 그를 비춰보이는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것은 이같은 거울효과가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발견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페르스발이 자신을 비추는 이미지를 보는 또 다른 장면은 '눈 위의 피' 장면이다. 이는 페르스발이 매에게 공격당한 기러기의 피 세 방울이 눈 위에 떨어진 것을 보고 연인의 하얀 얼굴과 붉은 빛이 떠올라 넋을 잃고 바라보는 장면이다. 흔히 이 장면은 그때까지는 "기억-복종-반복 mémoire-obéissance-répétition"[24]이라는 유아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페르스발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지적 작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마침내 '기호'를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곤 했다.[25] 그러나

대한 동일 작가가 이미 한 설명을 배제하고 변형 모티프에 기초하여 이 장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Ph. Ménard, art. cité, p. 70.

23) Et la procession passa, / Mais en mi la sale amassa / Entour la biere I grans toauz, / Car li sans touz chaus et vermaus / Rissi au mort par mi la plaie ; / Et che fu prouvanche bien vraie / Qu'encor iert chil laiens sans faille / Qui avoit faite le bataille / Et qui l'avoit mort et conquis. (vv. 1177-11850 Chrétien de Troyes, *Le Chevalier au lion*, édité et présenté par David Hult, Paris, Le Livre de Poche, 1994. (Lettres gothiques)

24) F. Dubost, *op. cit.*, p. 126.

25) Emmanuele Baumgartner, *Le Conte du Graal*, Paris PUF. 1999. pp. 102-103.

이 에피소드에서 성장의 표지만 읽는 것은 소설 전체를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이미지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페르스발이 떠올린 블랑슈플로르의 아름다운 이미지, 그에 대한 몰입에 가려 지금까지 간과된 것은 눈밭에서 수직으로 세운 자신의 창에 기대어 꼼짝하지 않고 눈 위에 흩뿌려진 세 방울의 붉은 피를 바라보고 있는 붉은 기사 페르스발 자신의 모습이다. 아더왕 궁정의 기사들의 연이은 도발을 물리친 뒤 페르스발이 다시금 창에 기대어 눈 위의 피를 바라보는 모습이 매번 환기되는 것은 크레티앵 드 트루아가 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겠다. 아더왕 진영의 사람들이 멀리서 본 눈밭 위 붉은 기사의 모습은 또 다른 ‘눈 위의 피’가 아니겠는가? 즉, 페르스발이 블랑슈플로르의 얼굴인 듯 하염없이 바라보는 흰 눈 위의 붉은 핏방울은 바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페르스발의 이미지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흰 빛의 창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그라알 행렬의 피 흘리는 창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Qant Percevaus vit defolee
> La noif sor coi la gente jut
> Et lo sanc qui entor parut
> Si s’apoia desus sa lance
> Por esgarder cele senblance. (vv. 4128-4132)

> 페르스발은 기러기가 떨어진 자리에 헤쳐진 눈과 그 주위에 흘려진 피를 보고는, 창에 기대어 <u>그 광경을</u> 내려다보았습니다. (255쪽)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피 흘리는 창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페르스발은 그 안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페르스발에게 그 이미지는 ‘자기성찰’ 대신 ‘자신의 망각 oubli de soi’만을 유발할 뿐이다. 그 이른 아침, 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격했다

가 그냥 두고 가버린 기러기가 흘린 피는 무엇보다도 목적없는 폭력의 흔적이다. 그러나 페르스발은 여전히 아름다움 이면에 존재하는 폭력에 무심하다. 이런 동일성이 '눈 위의 피' 에피소드 다음에 이어지는 추악한 아가씨 에피소드의 의미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눈 위의 피를 바라보던 페르스발이 바로 아더왕이 찾던 기사임이 밝혀지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아더왕 궁정에 들어갔을 때 한 추악한 아가씨가 등장하여 그라알과 피 흘리는 창을 보고도 질문을 하지 못한 일에 대해 페르스발을 맹렬히 비난하는 사건이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출현은 기사도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프로서 특정 탐색이 종료됨에 따라 이야기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기능을 갖는다. 다만 그라알 모험에서의 실패는 이미 사촌누이가 강력하게 비난했었던 바, 왜 뒤늦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똑같은 사건에 대해 더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피 흘리는 창'과 '눈 위의 피'를 자기성찰을 촉구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모험으로 본다면, 이는 그라알 성에서의 실패 이후 사촌누이의 질책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페르스발이 그 모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 따라서 같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3. 고해와 자기성찰

페르스발이 자신을 비춰 보이는 이미지들을 보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지만 페르스발이 마침내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추악한 아가씨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라알 탐색에 나선 지 오 년이 지난 다음이다.[26] 그 오 년간 페르스발은 60여 명의 뛰어난 기사들을 아더

26) 이때 페르스발이 그라알과 피 흘리는 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왕 궁정에 포로로 보낸다. 매우 간략하게 서술된 이 부분에서 그들의 전투장면이나 포로로 보내지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묘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앞서 언급된 관습에 따라 패배했을 때 복장 그대로, 붉은 피로 뒤덮인 채 아더왕 궁정에 보내졌을 것이며 피처럼 붉은 무장을 한 젊은이의 승리를 아더왕 궁정에 고하지 않았겠는가?

Por ce ne relaissoit il mie
A requerre chevalerie.
Que les estranges aventures,
Les felonesses et les dures
Aloit querant, et s’an trova
Tant que molt bien s’i esprova,
N’onques n’enprist chose si grief
Dom il ne venist a chief
.LX. chevaliers de pris
A la cort lo roi Artu pris
Dedenz .V. anz i enveia. (vv. 6151-616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사로서의 수훈 쌓기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항상 낯설고 험하고 거친 모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그런 모험을 무수히 만났고, 자신의 용맹함을 입증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는 이겨냈습니다. 다섯 해 동안 그는 아더왕의 궁정으로 훌륭한 기사를 예순 명이나 포로로 보냈습니다. (373쪽)

“어느 날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채”, 그러나 기사로서 수훈을 쌓는 것만은 게을리하지 않고 오 년을 보낸 뒤, 페르스발은 어느 날 세 명의 기사와 열 명의 귀부인

그 누구와도 겨뤄보겠다고 맹세하는 것(vv. 4660-4670)은 그라알 모험에 필요한 요건을 여전히 용맹성으로 이해하는 페르스발의 사고를 반영한다.

들을 만나게 된다. 페르스발이 대면하는 것은 이제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는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기사들이다. “무장을 하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던” 페르스발과는 달리 이들은 “머리를 두건 밑에 감춘 채 거친 털옷을 입고 맨발로” 걷고 있다. 이들 또한 페르스발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만 그것은 예전에 사람들이 페르스발의 수훈을 보고 느꼈던 ‘경이로움’이 아니라 ‘경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무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경악이다.

De celui qui armez venoit
Et la lance et l’escu tenoit
Se merveillerent molt les dames,
Et por sauvement de lor ames
Lor penitance a pié faisoient,
Por les pechiez que faiz avoient (vv. 6173-6178)

그가 그렇게 무장을 하고 창과 방패를 들고 오는 것을 보자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맨 발로 걸으며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던 여인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374쪽)

페르스발의 깨달음은 결국 이들 눈에 투사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되면서 얻어진다. 그라알의 피 흘리는 창, 기러기가 눈 위에 흘린 피에 이어서 마침내 맨발의 참회자에 의해 “무기를 드는 것 d’armes porter”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Ce n’est raisons ne biens
D’armes porter, ainz est grant torz,
Au jor que Jhesu Cristz fu morz. (vv. 6184-6186)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에 무기를 드는 것은 의롭지도 선하지도

못한 일이며, 실로 중대한 과오입니다. (374-5쪽)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맨발의 참회자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걸친 무장을 의식하게 된 그는 예전에 그가 숲에서 기사를 처음 보고 매혹되었던 것처럼 기사의 무장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날에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과오 grant torz"임을 듣는다. 마침내 고해를 하기 위해 은자를 찾아가 만났을 때 페르스발은 "눈물이 눈에서부터 턱까지 뚝뚝 흘러내리고 있는 enz el menton corrant l'eve des iauz li degotoit" (6278-9행) 모습이다. 페르스발이 흘리는 눈물은 참회자들과의 만남 에피소드 직전에 있는 고뱅 편에서 언급된 피 흘리는 창, "그 끝에 눈물처럼 영롱한 핏방울이 맺히는 창 la Lance dont la pointe lerme dou sanc tot cler que ele plore" (6092-3행)을 환기시킨다. 눈밭에서 창에 기대어 마치 "잠들어있는 semoielle" 듯 했던, 붉은 기사의 거의 '사물화된' 모습과 피눈물을 흘리는 창의 의인화된 모습 간의 역설적 대조는 이제 페르스발의 마음에서 일기 시작한 동요, 그가 내쉬는 한숨, 그의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로 의해 사라진다. 페르스발의 눈에서 턱까지 방울져 흘러내리는 눈물이 '피 흘리는 창'이 눈물처럼 흘리는 맑은 핏방울과 겹치면서 그라알 행렬 장면에서 일부 포착할 수 있었던 붉은 피가 흐르는 창과 붉은 기사 페르스발의 이미지 중첩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자가 왜 창이 피를 흘리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것은 페르스발의 눈물에서 이미 그 스스로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페르스발이 은자의 권유로 하게 된 고해는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대면하고도 번번히 기회를 놓쳤던 자기성찰이다. 그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낸 오 년"간의 행적이 "악 mal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한다.

Sire, fait il, bien a .V. anz
Que je ne soi ou je me fui
Ne Deu n'amai ne Deu ne crui,
N'onques puis ne fis se mal non. (vv. 6290-6293)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된 지가 벌써 다섯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게 되었고, 그 후로 행한 일은 악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381쪽)

페르스발이 '악'이라고 말한 5년간의 행적은 하느님을 망각하였으되, 기사로서의 수훈쌓기는 망각하지 않아 그 어떤 뛰어난 기사도 마다하지 않고 겨뤄 자신이 최고의 기사임을 입증한 행적을 가리킨다. 그것은 앞서 화자에 의해 "낯설고, 험하고 거친 모험들les estranges aventures, les felonesses et les dures"로 표현되었는데 이 "험하고 거친 모험들nos aventures de felenauses et de dures"은 페르스발이 처음 아더왕 궁정에 갔을 때 붉은 기사를 죽이고 아더왕에게 황금잔을 보내며 쾨에 대한 복수를 약속했을 때 광대가 했던 예언 속에 있던 말이기도 하다.

Et dit au roi : "Se Dex me saut,
Or aprochent nos aventures.
De felenauses et de dures
En verroiz avenir sovant, (vv. 1206-1209)

전하,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제 우리의 모험이 시작되나 봅니다. 앞으로는 험하고 거친 모험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92쪽)

거의 동일한 표현의 반복은 의미심장하다. 오 년 전 페르스발이 붉은 기사를 죽이고 잔을 돌려보내자 광대가 기뻐 날뛰며 아더왕국에서 그 도래를 예고했던 험하고 거친 모험들은 오 년간 페르스발이

잊지 않고 수행했던 "기사도 chevalerie" (6152행)이며, 오 년이 지난 뒤 페르스발이 그동안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악"에 다름 아니다. '피 흘리는 창'을 페르스발에게 자신의 과거 행적을 비춰 보이는 이미지로 간주했던 우리의 분석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페르스발의 자기성찰과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한 참회로 인해 이제 자연히 이야기의 지평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은자로부터 피 흘리는 창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스발이 더 이상 피 흘리는 창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는 것이 이를 암시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무렵 하나의 성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고해'가 이렇게 부각되지만 결국 기사의 자기성찰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은자가 페르스발을 기사로서 다시 떠나보낸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여전히 기사도적 지평에 머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체를 담고 있는 그라알에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빛나고 눈부신 것들에의 매혹으로부터 그것이 수반하는 폭력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는 페르스발의 여정에서 그라알 성은 그 접점에 위치한 곳이다. 그라알 행렬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 이면에 존재하는 고통을 페르스발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거니와, 은자 또한 대뜸 그라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 형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지 않았던가? 아더왕의 금잔을 연상케 하는 호화로움을 가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지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 그라알 성의 노왕에게 성체를 대접하는 그릇으로 밝혀진다. 페르스발이 했어야 하는 질문은 '그라알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라알로 누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가?"였다. 그 소유주가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아더왕의 금잔과는 달리, 그라알의 사용자는 페르스발의 가시권 밖에 있다. 그라알이 가시권과 비가시권을 오가면서 촉구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다. 엠마뉘엘 봄가르트네르가 지적한 것처럼 "세상과 타인들에 대해 마

음을 여는 것"[27]이다. 노왕이 성체 하나 만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그라알이 페르스발의 눈앞에서 한번이 아니라 세 차례나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페르스발에게 집요하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것은 처음 아더왕을 방문했을 때 왕비가 포도주를 뒤집어쓰는 모욕을 당한 뒤 다른 방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페르스발에게 그 일을,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와 유사한 수많은 그의 과거행적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보인다. 그것은 은자가 페르스발이 왜 그라알과 창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은자는 페르스발에게 "네가 전혀 모르는 이유"로서 그가 어머니를 떠났을 때 어머니가 느낀 슬픔, 그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을 언급하며 "네가 거기서 지은 죄"를 말한다. 어머니에 대한 페르스발의 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Et dit : "Frere, molt t'a neü
Uns pechiez don tu ne sez mot,
Ce fu li diels que ta mere ot
De toi, quant tu partis de li,
Que pasmee a terre chaï
Au chief del pont devant la porte,
Et de ce duel fu ele morte.
Por le pechié que tu en as
T'avint que tu ne demandas
De la lance ne do graal
Si t'an sunt avenu maint mal (vv. 6318-6328)

형제여, 이 큰 불행이 자네에게 닥친 것은 자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일세. 자네가 모친을 두고 떠날 때 그분께서는 자네로 인한 슬픔 때문에

27) E. Baumgartner, *op. cit.*, p. 103.

> 문 앞 다리목에서 혼절해 쓰러지셨고, 결국 그 슬픔 때문에 돌아가셨다네. 그 일에서 지은 죄 때문에 자네는 창에 대해서도 그라알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묻지 못하게 되었고 자네에게 숱한 불행이 닥친거지. (383-4쪽)

"네가 그 일에서 지은 죄 Por le pechié que tu en as"라는 은자의 말은 일견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죄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필립 메나르가 페르스발은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지 않으며 그 일은 그에게 닥친 불행일 뿐이고 어머니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모든 영웅적 운명과 불가분한 조건이라고 본 것[28]도 그런 해석에 기초한다. 그러나 은자가 언급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페르스발의 죄는 특정 사건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페르스발의 사고와 행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중 가장 큰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가 혼절하여 쓰러져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버들가지로 말의 엉덩이를 내려쳐서 전속력으로 떠나간 죄는 장막의 처녀가 했던 애원, 땅을 다 내놓으라는 붉은 기사의 도전을 받은 아더왕의 수치와 근심, 붉은 기사로부터 금잔에 가득 담긴 포도주 세례를 받고 분통하여 자기 방으로 들어간 왕비의 수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죄와 동일한 것이다. 이는 또한 처음 본 기사들이 그에게 다급히 묻던 것들, 어머니가 들려준 슬픈 가족사, 숯쟁이가 들려준 아더왕의 기쁨과 슬픔, 붉은 기사가 금잔에 대해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죄와도 사실 동일한 것이다. 어부왕 성의 홀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 음식이 들어 있음직한 예사롭지 않은 그릇이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누군가의 존재를 강력히 환기하는 것일진대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 것은 바로 같은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8) Ph. Ménard, art. cité, pp. 63-64.

다만 페르스발이 질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소설 안에서 은자의 설명 외에 다른 이유가 또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은자가 페르스발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don tu ne sez mot"를 설명해주었다면 페르스발이 의식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를 기사로 만들어 준 대인 고르느망의 말이다.

> Que do chasti li sovenoit
> Celui qui chevalier le fist,
> Qui li commanda et aprist
> Que de trop parler se guardast (vv. 3144-3147)

> 자신을 기사로 만들어준 대인의 충고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대인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199쪽)

페르스발이 그때까지 거의 유일하게 귀담아들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고르느망의 조언이 사촌누이와 은자가 말한 "어머니에 대한 페르스발의 죄"와 상충되는 것일까? 페르스발을 기사로 만들어준 고르느망이 페르스발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가르쳐주셨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사람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소설에서 기사도와 '어머니' 간에, 기사로서의 행동방식과 어머니에 대한 행동방식 간에 '비양립성'이 존재하고 그 점에서 "대인의 충고"와 "어머니에 대한 죄"가 서로 맥이 닿아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은자로부터 마침내 페르스발이 왜 질문을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듣는 것은 그가 비로소 남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듣기 시작한 시점이다. 페르스발은 참회자들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하고 오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쉴 새 없이 물었고 "페르스발이 들은 말은 그를 울게 했다".[29] 페르스발이 마침내 참회자들의 말을 듣

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해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자각과 더불어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다는 것, 공감의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모습에서 이미 은자는 그라알 행렬의 모험을 완수한 페르스발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앙투아네트 살리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크레티앵 드 트루아 소설 속 모티프들은 다른 모티프들과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만화경 속 이미지를 방불케 한다.[30] 이러한 소설에서 단일한 의미를 배타적으로 읽어내려는 것은 이 텍스트에 부합하는 독서가 아닐 것이다. 은자가 그라알과 피 흘리는 창에 대한 두 개의 질문 중 그라알에 대한 답만을 페르스발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그라알에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라알 이야기』의 후속 작품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성배탐색』에서는 그라알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는다. 그러나 크레티앵 드 트루아가 『그라알 이야기』의 서문에서 아무리 기독교적 덕목을 부각시키고, 또 그라알 안에 노왕의 생명을 유지시켜 온 '성체'가 담겨있다는 결정적인 언급을 해도 추후 『성배탐색』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적 지평이 크레티앵의 이 소설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은자의 거친 옷과 음식, 소박한 삶과 그의 형제 노왕이 성체를 시중받는 보석과 순금으로 된 그라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은자가 이 소설에서 페르

29) Ce que Percevaus oï ot / Lo fait plorer, et si li plot / Que au saint home alast parler. (vv. 6141 *sq*) 페르스발이 이때 들은 것은 "하느님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고해를 하고 오는 것"이라는 말이다.

30) A. Saly, *op. cit.*, p. 159.

스발에게 마지막으로 준 조언은 페르스발이 기사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이며 이 점에서 『그라알 이야기』가 기사도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만을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은자의 선택을 달리 해석해보았다. 은자가 피 흘리는 창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스발이 그에 대해 더 이상의 탐색을 하지 않는 것은 은연 중 페르스발이 그 답을 찾았으며 은자 또한 그것을 인지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작업은 바로 그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텍스트 내에서 '피 흘리는 창'으로 수렴되는 기호들을 찾는 것, 그 기호들이 한 에피소드에서 다른 에피소드로 반향을 일으키며 형성해나가는 의미망을 찾는 작업이었다. 크레티앵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붉은 피로 뒤덮인 패전기사의 모습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피 흘리는 창'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열쇠처럼 보인다. 그에 대한 묘사에서 붉은 색은 붉은 피로 뒤덮인 피해자와 붉은 무장을 두른 가해자를 동일하게 특징지으면서 이 둘 사이에 일종의 거울효과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 거울효과는 그 뒤에 이어지는 '피 흘리는 창'의 묘사에서 다른 모티프들과 결합되어 더욱 증폭되면서 '피 흘리는 창'을 페르스발에게 과거의 행적을 비춰 보이는 이미지로 읽을 수 있게 한다. 왜 창이 피를 흘리는지를 묻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다름 아니거니와 페르스발은 여기서 자기의 폭력행위를 읽어내는 데 실패한다. 그리고 그 실패는 역시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이는 '눈 위의 피'에 대한 몰이해에서 또 다시 반복되며 마침내 참회자들이 그를 보고 경악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멈추게 된다. 은자가 권유한 고해는 바로 자기성찰이다. 마침내 페르스발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폭력성을 돌아봄에 따라 더 이상 "왜 창에서 피가 흐르는지"를 질문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라알 이야기』의 페르스발 편은 이렇게 기사계급의 자기성찰에 대한 완결된 이야기로 읽힌다. 남

은 과제는 『그라알 이야기』의 또 다른 중심축인 고뱅의 모험을 어떻게 이와 관련시킬 것일지의 문제일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와의 대면을 요구하는 고뱅 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기성찰’의 주제는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추후 작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1. 텍스트

Chrétien de Troyes, *Le Conte du Graal*, édité et traduit par Charles Méla, Paris, Le Livre de poche, 1990. (Lettes gothiques)

Chrétien de Troyes, *Le Chevalier au lion*, édité et traduit par David Hult, Paris, Le Livre de Poche, 1994. (Lettres gothiques)

크레티앵 드 트루아, 『그라알 이야기』(최애리 옮김), 을유문화사, 2009.

2. 연구서 및 논문

Robert Baudry, “Quels antécédents pour le Graal?” dans *Les Personnages autour du Graal*;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et transséculaire des 7 et 8 juin 2007. pp. 9-22.

Emmanuele Baumgartner, *Le Conte du Graal*, Paris, PUF, 1999. (Etudes ittéraires)

Keith Busby, *Perceval (le Conte du graal)*, Grant& Cutler Ltd, 1993. (critical guides to French texts)

Annie Combes & Annie Bertin, *Ecritures du Graal*, Paris, PUF, 2001. (Etudes littéraires)

Francis Dubost, *Le Conte du Graal ou l’art de faire signe*, Paris, Champion, 1998.

Jean Frappier, *Chrétien de Troyes et le mythe du Graal*, Paris, SEDES, 1972.

_____, *Autour du Graal*, Genève; Droz, 1977.

Donald Maddox, "Lancelot et le sens de la coutume" dans *Cahiers de civilisation médiévale*, n° 116, Octobre-décembre 1986, pp. 339-353.

Jean Marx, *La Légende arthurienne et le Graal*, Paris, PUF, 1952.

Charles Méla, *Variations sur l'amour et le graal,* Genève, Droz, 2012.

Philippe Ménard, "Réflexions sur la Porteuse du graal"dans *Les Personnages autour du Graal*;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et transséculaire des 7 et 8 juin 2007, pp. 41-60.

_____, "Problèmes et mystères du *Conte du Graal* : un essai d'interprétation"dans *Polyphonie du Graal* (textes réunis par Denis Hüe), Orléans, Paradigme, 1998. pp. 59-76. (article paru dans *Chrétien de Troyes et le Graal,* colloque arthurien belge de Bruges, Paris, Nizet, 1984, pp. 61-76.)

Alexandre Micha, "Deux Etudes sur le graal, I : Le Graal et la lance", *Romania*, 73, 1952, pp. 462-479.

Richard O'Gorman, "Deux siècles de recherches sur le Graal"dans *Polyphonie du Graal* (textes réunis par Denis Hüe), Orléans, Paradigme, 1998. pp. 181-188.

Daniel Poirion, "Du Sang sur la neige : nature et fonction de l'image dans l*e Conte du Graal*"dans *Polyphonie du Graal* (textes réunis par Denis Hüe), Orléans, Paradigme, 1998. pp. 89-106.

Jacques Ribard, “Ecritures symboliques et visée allégorique dans *le Conte du graal*” dans *Oeuvres et Critiques*, 5, 2, (1981), pp. 103-9.

Antoinette Saly, “La récurrence des motifs en symétrie inverse et la structure de *Perceval*”dans *Polyphonie du Graal* (textes réunis par Denis Hüe), Orléans, Paradigme, 1998. pp. 147-167.

최애리, 『중세 그라알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Résumé »

Une Interprétation du cortège du graal – lire *le Conte du graal* comme un conte de la lance qui saigne

Kim Jeong He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On a beaucoup écrit sur le cortège du graal, notamment sur l'origine de ces objets mystérieux qui sont 'le graal' et 'la lance qui saigne'. Que ce soit chrétienne ou celtique, des explications cherchant leur origine à l'extérieur du roman comportent une limite : à savoir qu'elles sont difficilement compatibles avec le reste du texte de Chrétien de Troyes. Or, à la différence de ces travaux, nous avons essayé de trouver leur origine à l'intérieur du roman. Il s'agit de dégager le jeu d'échos autour de ces objets, notamment autour de 'la lance qui saigne'qui nous semble occuper une place centrale dans ce roman. Nous avons relevé des éléments textuels auxquels fait référence l'image condensée de 'la lance qui saigne' et nous avons montré comment ils se sont reliés l'un à l'autre pour faire surgir le sujet du roman.

L'épisode de la première visite de Perceval à la cour du roi Arthur offre un parallélisme intéressant avec l'épisode de sa visite au château du roi Pêcheur. La coupe d'or du roi Arthur que le chevalier vermeille emporte à la place de la terre, la reine qui

reste dans sa chambre, attristée par l'incident du vin versé sur elle, et l'indifférence totale de Perceval à tous ces événements sont des éléments entre autres qui confèrent l'impression du déjà-vu à la scène du cortège du graal. C'est surtout dans la scène du combat entre le chevalier vermeille et Perceval que nous avons trouvé les premières indices significatives pour 'la lance qui saigne'. Le contraste est frappant entre l'attaque du chevalier vermeille par "le côté où il n'y a pas de fer" et le lancement du javelot, coup félon de Perceval qui tue ainsi son adversaire. La mention inhabituelle du "côté où il n'y a pas de fer" dans cet épisode ne semble pas gratuite si l'on considère l'insistance sur le fer de 'la lance qui saigne', symbole de violence par excellence. L'image de violence de Perceval se renforce par l'appropriation des armes du chevalier mort, Perceval devenant désormais le chevalier aux armes rouges, couleur du sang qu'il ne cessera pas de faire couler.

L'image clé dans le réseau des images sanglantes se rapportant à 'la lance qui saigne' se trouve dans l'épisode de la coutume du prisonnier, selon laquelle le vaincu doit se rendre au prison dans l'état où il se trouve au moment de la défaite. Mettant en relief la couleur rouge du sang qui couvre le vaincu, cette coutume permet de créer l'effet de miroir entre le vaincu et le vainqueur aux armes rouges. Par l'utilisation des mêmes rimes, ce jeu du miroir se répercute dans la scène de 'la lance qui saigne'. En se combinant avec le motif de cruentation, ceci nous permet de lire cette lance qui saigne comme un miroir qui reflète les actes de violence de Perceval. Notre interprétation de 'la lance qui saigne'

comme un reflet de Perceval peut être étayée par une autre scène du même type : à savoir celle de trois gouttes du sang sur la neige. Un chevalier vermeille immobile dans une plaine enneigée étant lui-même une image d’une goutte de sang sur la neige, Perceval échoue encore à se reconnaître dans cette image. C’est à la vue des chevaliers pénitents à pieds nus que Perceval finit par prendre conscience de ses armes rouges, du sang qu’il a fait verser.

La confession que Perceval accepte de faire n’est autre que l’introspection à laquelle faisait tant appel l’image frappante de ‘la lance qui saigne’. Notre lecture des indices textuels se rapportant à ‘la lance qui saigne’ nous permet ainsi de lire le *Conte du graal* comme un roman d’introspection de la chevalerie. Le fait qu’après la confession, Perceval n’envisage plus une quête sur ‘la lance qui saigne’ semble confirmer notre analyse. Perceval désormais introspectif a compris lui-même pourquoi la lance saigne et cette quête est donc accomplie définitivement pour lui.

주제어 : 크레티앵 드 트루아, 『그라알 이야기』, 그라알 행렬에 대한 내재적 접근, 피 흘리는 창, 모티프의 반복, 자기성찰, 거울효과
Mots-clés : Chrétien de Troyes, Le Conte du graal, l’origine interne du cortège du graal, la lance qui saigne, récurrence des motifs, l’introspection, l’effet de miroir

논문 투고일 : 2014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 2014년 11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14년 12월 1일